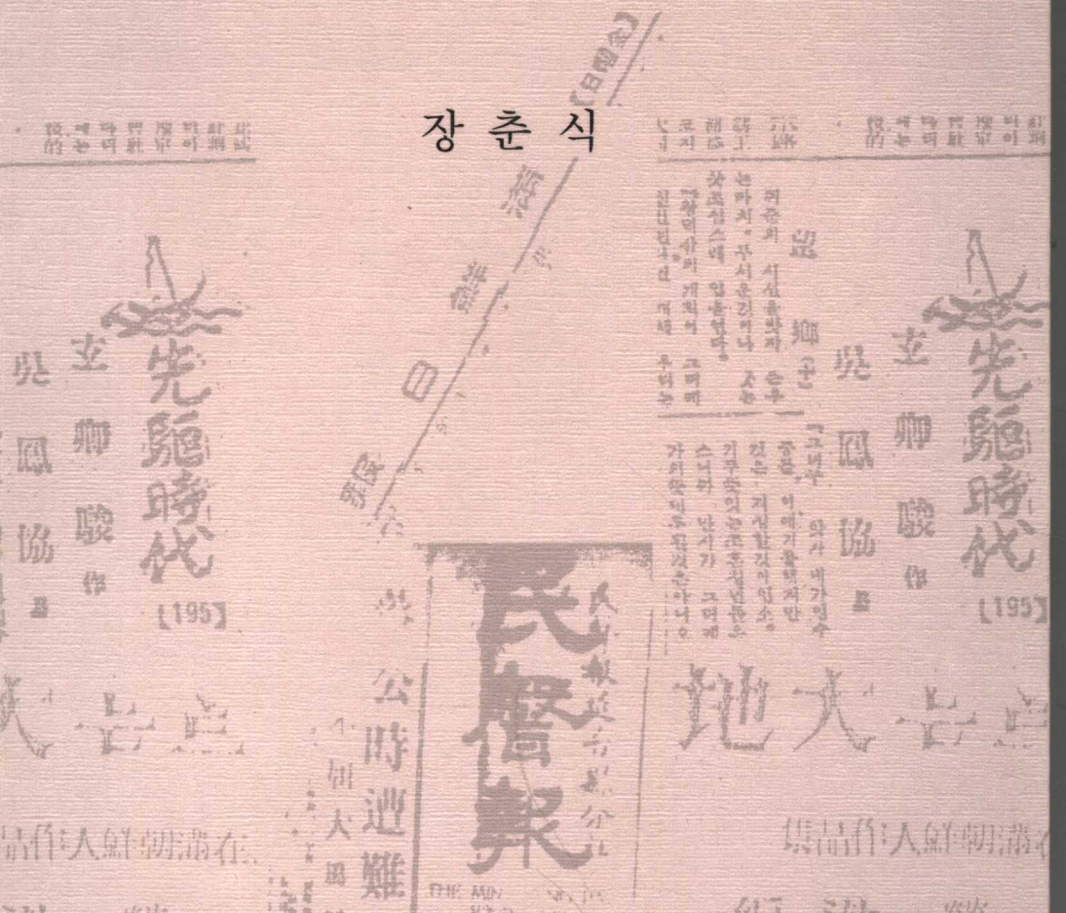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조선족 이민문학



장춘식

민족출판사

需要全本请加V www.ertongbook.com

일제강점기
조선족 이민문학

장 춘 식

민 족 출 판 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日据时期朝鲜族移民文学/张春植著. —北京:民族出版社, 2005.11
ISBN 7-105-07338-1

Ⅰ.日... Ⅱ.张... Ⅲ.朝鲜族－少数民族文学:现代文学－文学史－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29207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11月第1版 2005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9.875 字数:241千字
印数:001-800册 定价:23.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머리말

1995년, 그동안 우리 새시기 문학연구에 정진해왔던 필자에게 관심의 방향을 확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大地》와 《滿洲詩人集》, 《在滿朝鮮詩人集》을 읽은것이다. 우리의 해방전문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여지면서 필자의 주된 연구방향도 우리의 해방전문학연구에로 옮겨졌다.

그때로부터 꼭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주로 해방전 우리 소설문학의 연구에 주력해오다가 《해방전 조선족이민소설연구》를 상재한후로는 주로 비평과 희곡, 시문학에 대한 연구에 전념해왔다. 그것이 이번에 상재하는 이 저서의 내용이 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필문학에 대해 아직 손대지 못하고있는것은 큰 아쉬움이다. 앞으로 자료가 수집, 정리되는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시문학과 희곡, 비평부분은 이번에 새로 작성한 최신연구성과라 할수 있다. 다만 소설부분은 한권의 책으로 이미 간행한 상황이므로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연구를 시작한이래 《해

방전 조선족이민소설연구》가 간행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했던 우리 소설 연구의 과정, 즉 자료정리, 기초적인 연구, 리론적인 틀 만들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을 묶어서 수록했다.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시의 경우에도 이번의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기전에 《해방전 조선족의 시문학》이라는 론문을 발표한바 있고 그 론문을 통해 현재의 시문학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리해할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수도 있을것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록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갈수록 깊이 느낀다. 문학적성과물이 량적으로 생각보다 방대하고 그에 비해 자료획득은 오히려 어려우며 심지어 현재 구할수 있는 영인본 텍스트들이 해독불가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것을 해독하는데도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관련 연구성과들이 제한되여있어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더 연구를 어렵게 하고있다. 같은 분야 전공자들이 좀더 많았으면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련만 그마저 여의치 않다. 그래서 10여년을 애써왔지만 이번에 상재하는 이 성과물도 아직은 기초적인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앞으로 보다 깊이있는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 기회를 빌어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전공자들이 좀더 많이 출현했으면 하는 바램의 마음을 전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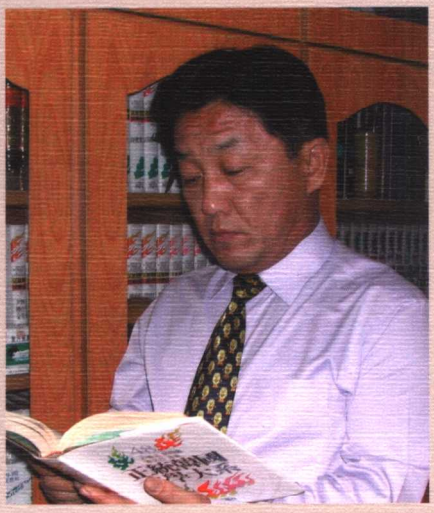
개인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3년여를 함께 생활하며 늦게 본 외손녀를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던 장모님께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작고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은 저작이지만 좀더 진일보한 연구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

성과는 앞으로 3~5년후를 기약하고 필자의 연구에 주목해온 독자들께서 애독하시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아울러 부족한 필자의 글들을 편애해주시고 쾌히 간행해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 편집실주임이하 모든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반벽거(半壁居) 서재에서
저자 장춘식
2005년 10월 25일



장춘식(張春植)

호 경은(京隱),
필명 반벽거사, 주선, 주예 등.

○ 1959년 2월 28일 길림성 룡정시 개산툰진 선구촌에서 출생.
○ 1984년 중앙민족대학 조문학부 졸업.
○ 2003년 8월 한국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취득.
○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부연구원.
○ 저서
《시대와 우리 문학》(1993),
《음성양쇠》(1996),
《파멸에로의 욕망》(1998),
《韓國現代文學史》(공역, 2000),
《해방전 조선족이민소설연구》(2004).
그밖에 문학론문 다수 있음.

▮차 례

□머리말 / 2

서 론

○ 서론 / 2

○ 조선족문학의 개념에 대하여 / 6

1. 문제의 제기 / 6
2. 조선족문학과 관련된 개념들 / 7
3. 건국전 우리 작가들의 주장 / 12
4. 결론 / 19

제1부 시문학의 갈래와 특징

Ⅰ. 항일시가 / 23

1. 관내지역의 항일시가 / 23
2. 동북지역의 항일시가 / 26

Ⅱ. 문단시가 / 34
1. 《민성보》시기의 시작품 / 35
2. 《북향》시기의 시작품 / 43
3. 《만선일보》시기의 시작품 / 48
4. 주제의식과 형식적특징 / 101

제2부 민족이민사와 현대소설
○ 민족이민사와 현대소설 / 106
○ 《만주》소설의 정신사적의미 / 124
1. 《싹트는 대지》란? / 125
2. 주제의식과 작가정신 / 127
3. 민족 정신사적인 의미 / 143
4. 문학사적인 의미 / 153
○ 중국체험과 한국 현대소설 / 158
1. 서론 / 158
2. 류민소설의 전개양상 / 159
3. 이민소설의 전개양상 / 167
4. 류이민작가들의 정체성인식과 현실인식 / 179
5. 결론 / 189
○ 광복전 조선족 이민소설의 정체성인식 / 191

제3부 이민희곡의 두 흐름
1. 서론 / 206
2. 항일부대에서의 연극창작과 그 의미 / 207

3. 문단희곡의 성향과 그 수준 / 220
4. 일제강점기 우리 희곡의 형식적특징 / 235
5. 소결 / 241

제4부 문학비평 개관

1. 서론 / 244
2. 《만선일보》 이전시기 비평의 양상 / 245
3. 《만선일보》시기 비평의 양상 / 261
4. 결론 / 302

서 론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

서 론

조선족의 문학사를 어떻게 쓸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혹 우리 문학사는 벌써 나왔는데 웬 질문이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조성일, 권철 등이 편찬한 《중국조선족문학사》가 1990년에 나와있으니말이다. 그러나 그게 모범답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중국이나 조선, 한국에서 그토록 많은 문학사 론저들이 끊임없이 저술, 간행되였겠는가.

현재 유일하게 찾아볼수 있는 《중국조선족문학사》 또한 당시 우리 관련학계의 권위자들이 모여 편찬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특히 해방전부분은 수록작가 선정의 원칙에서부터 시기구분, 분량배당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우리 문학의 성격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학사를 기술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였던것 같다.

해방전 우리 작가문학으로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작가는 김택영, 신정, 신채호, 김창걸, 윤동주 등 5명인데 사실 김택영이나 신정, 신채호 등의 문학을 우리 문학으로 볼수 있는 단서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왜서 이들을 우리 작가로서, 그것도 이처럼 큰 비중을 두고 다루었을가? 아무래도 이들이 중국에 와서 장기간 생활한 조선인이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섭이나

김광주, 강경애, 안수길, 현경준 등 작가는 왜 다루지 않았을가? 작품을 주로 조선의 신문잡지들에 발표했기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안수길이나 현경준은 《만선일보》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왜 이들도 빠졌는가고 물으면 광복을 맞으며 한국이나 조선에 나갔기때문이라고 한다. 또 강경애를 다루지 않은 것은 조선작가 혹은 한국작가로 널리 알려졌기때문이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록작가 선정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로출된것은 우리 문학의 개념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이 아닐가 한다.

그렇다면 조선족문학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것인데 필자는 우리 문학의 개념을 정체성의 시각에서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본저에서 론의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학사 연구에서 적용하는 작품성을 또다른 원칙으로 한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우리 문학인지도 확인할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로서의 우리 이주민의 정체성은 어떤것이였을가?

결론부터 말하면 단군의 후예라는 민족적정체성과 만주국국민이라는 국민적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정체성의 소유자들이고 그러한 이중성은 나중에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적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된다. 민족적정체성과 국민적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저 제2부의 《광복전 조선족 이민소설의 정체성인식》에서 좀더 전개하게 될것이거니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이와 같은 이중적정체성은 이주민 일반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지만 중국에 거주한 우리 이주민은 이러한 이중성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주국이 모국땅을 짓밟은 일

제에 의해 조작된 괴뢰국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인 중국인의 배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오족협화》라고 하는 괴뢰만주국의 건국리념을 리용하지 않을수가 없었기때문이다.

문학 또한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의 지배를 받을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조선족의 문학을 이중적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민문학으로 개념할수 있지 않을가 한다.

14세기중엽 원나라 지순년간(至順年間, 1330—1332)에만 해도 료동일대에는 몇십만의 고려인들이 살았다고 하니 조선인의 중국이주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량이주는 1869년—1874년 5년에 걸쳐 조선북부의 흉작이 계기가 되였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주민의 다수는 가난한 농민들이였으므로 기본적으로 구비문학이 문학의 주체를 이루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합방》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조선독립을 위해 이주한 애국지사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학교가 생기고 애국계몽을 위한 창가와 한시들이 창작, 보급되기 시작한것이다. 이어 항일유격구에서는 항일가요와 항일연극이 많이 제작되였던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단문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것은 아무래도 193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문화부대》라 불린 지식인이주민의 대량류입과 함께 시작되였다고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이주민의 학교와 신문잡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식자인구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게 되였고 이들중에는 일부 상당한 수준을 갖춘 문학청년들도 포함되여있었던것이다. 거기다가 《문화부대》와 함께 들어온 기성문인들이 문학창작의 주체를 이루어 예비력량을 적극 부추김으로써 문단이 이루어지고 수준높은 문학작품들이 제작되기 시작

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은 이주민으로서의 조선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형성되였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중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조선족 문화공동체에 합류되지 않았던 김택영이나 신정, 신채호의 문학은 조선족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수 있다. 적어도 본격적인 조선족문학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주요섭이나 김광주의 문학은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들은 비록 조선족공동체문화의 중심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망명자 혹은 류학생, 류랑민으로 이루어진 이주민공동체의 외곽에 위치하여 조선족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이들의 문학은 오히려 공동체의 문학과 좀더 근접된 모습을 보이고있는것이다. 이민문학의 또다른 형태로 최서해의 문학을 들수 있다. 최서해는 조선족이주민공동체의 일원이였다가 귀국하여 재정착한후 문단에 데뷰한 작가이다. 따라서 최서해의 문학은 이주민공동체의 정체성에서 점차 멀어지는 성향을 보이고있지만 상당정도 그러한 정체성의 특징들을 보존하고있어 비록 본격적인 이민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가 애매한 상황이지만 김택영이나 신정, 신채호의 경우보다도, 주요섭, 김광주의 경우보다도 이민문학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경우가 된다.

이제 이와 같은 조선족문학의 개념에 근거하면 광복전 우리 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조금은 더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김택영이나 신정, 신채호의 문학은 우리 문학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본격적인 이민문학이 형성되기까지 우리 문학이 겪어온 한 과정이라고 보면 대과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사에서처럼 큰 비중을 두고 다룰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언급은 되여야 할줄 안다. 주요

섭이나 김광주, 최서해의 경우는 이들보다 좀더 이민문학의 성격이 뚜렷하므로 이들보다는 좀더 비중있게 다루는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이것이 본저에서 채택한 우리 문학사 범주의 설정기준이 되는셈인데 비록 아직은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지만 우리 문학사 기술의 새로운 원칙이나 시각으로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닐것으로 짐작한다.

조선족문학의 개념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조선족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너무도 상식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 조선족이 만들어낸 문학적생산물이라고 간단히 대답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조선족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중국 조선족문학, 조선족문학, 조선민족문학, 간도문학, 만주문학, 재만문학, 이민문학, 망명문학, 대륙문학, 동포문학 등이 있는가 하면 지역 명칭에 《조선인》, 《한인》, 《동포》, 《교포》 등의 개념이 첨부되여 또 수많은 개념을 파생시키고있다. 앞의 세 개념은 주로 중국에서, 특히 조선족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고 그외의것은 주로 해외에서 많이 사용

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국내 조선족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 즉 《중국 조선족문학》, 《조선족문학》, 《조선민족문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조선족문학과 관련된 개념들

윤윤진은 조성일, 권철 주편으로 된 《중국조선족문학사》 등에서 사용된 《중국 조선족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리유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까지는 《조선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건국전후의 중국내 조선인문학은 《작품의 제재, 주제 나아가서는 거기에 반영된 의식 등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면서 《광복전 문학을 조선족문학이라고 호칭하기보다 조선인문학이라고 하는것이 더 적절할뿐만아니라 사실에 접근된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조선족이란 호칭이 한반도에 거주하지 않은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인을 호칭하는 대명사로서 그 전 시기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있다는 여건을 파악할 경우 사정은 더 자명해지는것이다.》[1]고 지적한다. 이런 견해는 윤윤진 한사람의 견해만은 아닌것 같다. 안수길이나 현경준, 김조규 등 건국전 이주민문단에서 상당히 활약하다가 광복을 맞으며 한국이나 조선에 나간 작가들의 문학적업적을 조선족문학사에서 다루기를 꺼려 하는 학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윤윤진의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대표성을 띤다고 볼수도 있을것이다.

---

1) 윤윤진, 《중국조선인문학연구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문학과 예술》, 1993년 제6호).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